opusdei.org

단장으로부터 (2022 년 7월 22일)

몇몇 도시를 사목 방문하신 오 푸스데이 단장님께서는 해당 기간에 기쁨을 누리셨던 이유 중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.

2022-7-20

사랑하는 자녀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제 딸들과 아들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몇 주 동안 행해진 저의 사목 방문에 대해서 많은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사목 방문을 하는 동안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많은 이유들 중 하나를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.

언어가 다르고 관습들이 다른 나라들 속에서, 저는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자면, 다양함 속의 일 치를 경험한 것입니다.

온 교회의 일치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오푸스데이 사업의 일치는 무 엇보다 성체성사 위에 놓여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형제애 안에서 표현됩니다. —표현되어야만 합니다. — 호세마리아 성인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"서로 사랑하십시오!"라고 호소를 하셨는지요. 사랑은 이해해주는 것이자,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, 기도해주는 것이며,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

입니다. 사도적 열망 안에서 확장되 는 일치는 열려있기 마련입니다.

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자 우리 모두 그리고 각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자주 경험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공정한 사랑의 어머니이신우리 성모님께 간청합시다. 성모님의도움으로 우리는 모두 주님께 "당신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셨습니다(시편119, 32 참조)."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

저는 또한 8월 중순에 거룩한 땅 이 스라엘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여러 분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갈 때, 여 러분이 기도로 동참해주시기를 청합 니다. 그곳에서 저는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

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팜플로나,	2022년	7월	20일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danjangeurobuteo-2022nyeon-7weol-22il/ (2025-11-19)